

도자기 분야 분류 체계 및 기본 용어의 번역에 관한 고찰

박 현 주
(부산대)

1. 들어가며

한국 문화를 해외에 소개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분야가 도자기이며 해외 박물관에 소개한 한국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도자기다. 그러나 도자기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재 용어 중 가장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야이며(유홍준 1999: 19) 분류 체계도 서양과 달라 일부 용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 도자기를 소개할 때 그 범위에 선사시대 토기류까지 포함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청자, 분청, 백자 등의 자기류로 국한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며 분류 체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1대 1 대응 관계를 전제로 번역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자기류는 대체적으로 그 영문 번역어가 통일되게 쓰이고 있지만 특히 ‘토기’는 pottery, earthenware, stoneware 등으로 다

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서양 도자사에서 earthenware와 stoneware는 상호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본고 3.2 참조) 이 두 용어가 모두 ‘토기’의 대역어로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토기와 관련된 SL 용어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도자기 분야 번역을 위한 대역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맥락에서의 도자기 분류 체계와 분류 체계를 이루는 기본 용어의 영문 번역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번역어가 혼재하는 원인으로 SL, TL 도자기 분류 체계의 상이성과 SL 용어 자체의 모호성을 상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도자기 분야 번역 시 ST의 저자가 적용하고 있는 정의 및 분류 체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류 체계가 달라질 경우 번역어 또한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구체적 사례(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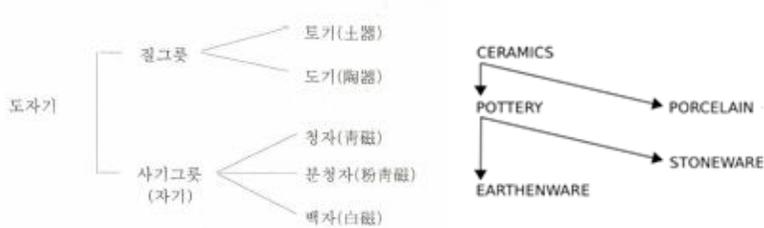
2. 도자기 분야 분류 체계 및 기본 용어의 표준화

도자기 분야 분류 체계 및 기본 용어의 표준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청이 1999년 진행한 ‘문화재용어 순화사업 학술용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분야(고고학, 민속학, 건축사, 미술사)의 학계 전문가가 당시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순화안을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영문 표기 실태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재청 1999).

동 용역의 결과 보고서인 ‘문화재용어 순화안’에서 도자기 용어와 관련된 언급은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 순화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자기의 용어 통일(안)”이라는 제하의 미술사 분야 순화안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문장이 “우리나라 문화재 용어 중 가장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은 도자기 분야”라고 시작한다(유홍준 1999: 19). 학계에서도 용어가 표준화되지 않은 채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술적 고려 없이 일제강점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며 용어의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토기(土器)’와 ‘도기(陶器)’의 혼란과 ‘자기(磁器/瓷器)’와 ‘사기(沙器/砂器)’의 혼용을 지적한다. 유홍준(*ibid.*)은 시유 여부를 기준으로 도자기를 크게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과 유약을 입

힌 자기로 구분한 후 질그릇은 다시 토기와 도기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자기 및 사기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자기그릇이라는 용어가 질그릇에 대비되는 개념 이기는 하지만 일상용어이므로 자기가 학술 용어로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분청사기 또한 고려청자 및 백자처럼 분청자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전문용어 조어 원칙(ISO 704:2009) 중 일관성 원칙(1)에도 부합한다. 전체적으로 그는 이러한 구분이 무기재료학 혹은 요업공학의 개념과 일치하면서 동양 도자사는 물론 영미권의 도자기 분류 체계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림 1의 a와 같은 도표로 요약하고 있다.

그림 1 도자기 분류 비교



a. 한국 도자기 분류안(유홍준 1999: 21) b. 영어권 분류(Levická 2008)²⁾

‘문화재용어 순화안’의 고고학 용어 순화안 기본 방향을 보면 일본식 한자어의 보편적 사용을 지적하며 ‘도질토기’를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토기와 도기를 병기하여 의미상으로도 모순되므로 ‘도기’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이청규 1999: 12).

문화재청은 ‘문화재용어 순화안’을 바탕으로 2000년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을 발간했고 현재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 스캔본(PDF)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역시 ‘다듬은 말(순화어)’ 메뉴에서 문화재용어 자료집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역시, 관

례를 따른 정의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문화재청 순화안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동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문화사에서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구워낸 다공질 그릇인 ‘토기’와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구워낸 ‘자기’로 구분된다. 이는 고고학 분야의 구분이고 미술사 분야에서는 ‘도기’와 ‘자기’로 구분한다. 자기가 생산되기 이전의 그릇을 통칭하는 이 광의의 ‘토기’ 개념에 대비해 협의의 ‘토기’ 개념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따르던 이분법적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토기’, ‘도기’, ‘자기’로 구분할 때의 개념이다. 즉, 토기와 도기가 동의어로 간주되거나 혹은 그 구분이 모호했던 기존 광의의 개념에 반해 후자에서는 이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우리역사넷에서는 기존 관례에 따라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아래와 같이 토기와 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무른 질의 선사시대 그릇은 토기, 삼국시대의 단단한 석기질 토기는 도기, 그릇 전체가 유리질화된 것은 자기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자기 발생 이전의 그릇을 일괄하여 토기로 표현하기로 한다. (우리역사넷)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하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미술사 분야 전시 용어를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미술사는 다시 서화, 불교미술, 공예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자기는 공예의 하위 분야인 ‘도자공예’로 분류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자(磁/瓷)’와 ‘분청사기/분청자(粉靑沙器/粉靑瓷)’ 등 한자의 혼용과 대접, 접시, 완, 잔 등 기종의 애매한 분류 기준을 들고 있다. ‘자’의 한자어와 관련해서는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그 기원이 현대에 보다 근접한 ‘磁’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분청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자기소’로 기록된 가마터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으며 분청사기라 칭함으로써 분청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일반에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청자’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분청사기’라는 용어가 고유명사화되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념 전달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이 용어를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한다(국립중앙박물관 2006).

1) 특정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념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련의 용어가 체계적 구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박현주 2018: 141).
2) 보다 자세한 분류는 그림 2를 참조하라. ‘영어권’ 분류라 명명한 이유는 각주 6)에 기술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그에 따라 소장품별 특성에 맞게 기술 지침을 마련한다. 소장품의 시기가 근현대로 국한되기는 하지만 주체가 국공립박물관이고 문화재청 용어 순화 작업 기준 15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표준화 노력의 반영 여부를 살필 수 있으며 도자기 분야 용어에 대한 영문 대역어도 포함하고 있어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자기는 공예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자’는 도기와 자기를 통괄하는 개념으로 재료에 따라 “토기, 도기 Earthenware, 석기 Stoneware, 자기 Porcelain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박미화 2014: 64). ‘토기’와 ‘도기’를 모두 ‘earthenware’로 보고 ‘stoneware’에 대해서는 ‘석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앞서 언급한 ‘문화재용어 순화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석기(石器)’는 일본에서 서양의 ‘stoneware’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만든 번역 용어다.³⁾ 이 ‘석기’ 개념이 ‘도기’와 같은 개념이라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두 개념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석기’는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의 돌로 만든 도구를 의미하는 ‘석기(石器)’를 연상시키므로 전문용어학적 관점에서는 ISO 704의 무중의성 원칙에 준해 ‘도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3. 도자기 용어 번역 현황

도자기 분야 기본 용어의 번역 현황을 본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한국 문화를 총서 형식으로 소개하는 영문 자료의 거시적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는 책 내지에 번역자 정보가 수록되어 번역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출판 자료로 국한하였다. 1970년대에 출판된 ‘The Arts of Korea’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시리즈 전체 대비 도자기 관련 자료의 구성, 해당 권 자체의 구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

3) 표제항 ‘백자(白磁)’ 참조(<http://encykorea.aks.ac.kr/>).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역시 ‘석기’가 stoneware를 일본어로 번역한 용어라 밝히고 있다(<http://www.moco.or.jp/ko/intro/guidance/>).

써 한국문화사에서 도자사의 위치, 도자사의 내부적 분류 체계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 한국 문화 소개 시리즈

번호	시리즈	도자기 관련 권 제목	출판 정보
S1	The Arts of Korea	Ancient Art (Vol. 1) Ceramics (Vol. 4)	Dong Hwa Publishing (1974/1979)
S2	Handbook of Korean Art	Earthenware and Celadon (Vol. 2) White Porcelain and Punch'ong Ware (Vol. 3)	Yekyong Publishing (2002)
S3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Pottery: Korean Traditional Handcrafts (Vol. 14)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6)
S4	Korean Culture Series	Korean Ceramics (Vol. 12)	Korea Foundation (2008)

전체 여섯 권으로 구성된 ‘The Arts of Korea’ 시리즈 중 도자기와 관련된 권은 총 두 권이다. 제1권 *Ancient Art*는 토기를 포함해 고려 시대 이전의 유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4권 *Ceramics*에서는 청자, 분청, 백자를 다룬다. ‘Handbook of Korean Art’는 예경출판사가 펴낸 ‘코리안 아트북’ 시리즈의 영문 번역본이다. 토기와 청자를 다룬 2권 *Earthenware and Celadon*과 백자와 분청을 다룬 3권 *White Porcelain and Punch'ong Ware*가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는 이화여대출판부에서 발간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의 영문 번역본이다. 도자기와 관련된 권은 14권 *Pottery: Korean Traditional Handcrafts* 뿐이다. 도기가 한국 도자 공예 중 가장 유구하고 강력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간 한국 도자사가 주로 자기류 중심으로 서술되었음을 지적하며 토기를 단독 권으로 구성하고 유약 여부를 기준으로 무유도기와 시유도기로 구분해 소개한다. 한국교류재단의 ‘Korean Culture Series’ 중 *Korean Ceramics*는 선사시대 토기부터 조선 분청 및 백자에 이어 용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들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분류 체계와 용어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보인다. 첫째는 도자기(ceramics)에 고고 토기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단적으로 S1은 선사시대부터 고려 이전까지의 토기를 고고유물(Vol. 1 Ancient Art)로 묶어 도자기(Vol. 4 Ceramics)와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해 S4는 선사시대 토기까지 모두 도자기(Vol. 12 Korean Ceramics)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

다른 한 가지 사항은 용어와 관련된 문제다. S2는 ‘토기(earthenware)’, S3는 ‘도기(pottery)’라고 표현하고 있어 얼핏 보면 다른 개념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S4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무유번조, 즉 유약 없이 구워낸 그릇을 대개 ‘토기’라 부르는데 ‘도기’라는 용어가 같이 쓰이기도 한다(Korea Foundation 2008: 13). 이에 따르면 S2와 S3의 토기와 도기는 모두 ‘자기’에 대비되는 동일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토기=도기’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게 될 것처럼 두 개념이 상호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문제(SL 자체의 분류 및 용어 혼용 문제)는 동일 분야에 대해 다른 개념 체계를 갖는 이언어 간 번역 상황 하에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 소장 한국 문화재 도록 시리즈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1>에 제시된 자료와 별도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간된 자료이므로 분류 체계 및 번역에 있어 일관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어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3.1 분석 대상 및 번역 현황

○ 분석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NRICH: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는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유수 기관(주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를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도록으로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영어 번역문이 병기된 영미권 도록 12권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다(<표 2> 참조).⁴⁾ 2017년 기준 조사가 이루어진 영미권 기관 13곳 중 『미국 예일대학교 도

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은 전적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고는 또한 언어 간의 상이한 개념 체계 및 그로 인한 번역에의 영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도자기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을 기본 용어라 칭하고 논의를 이들 개념에 한정하여 진행한다.

<표 2> NRICH 도록 시리즈 번역 현황

조사 대상 기관	발간 연도	번역 현황 (목차 및 본문)	
		SL	TL
미국 보스턴 미술관(Bos)	2004	토기	pottery
		도기	-
		도자기	ceramics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Bro)	2006	토기	stoneware; earthenware(경질토기)
		도기	stoneware; earthenware
		도자공예	pottery crafts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Phi)	2008	토기	stoneware; early stoneware
		도기	-
		도자	glazed ceramics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미술관(Cor)	2009	토기	stoneware; earthenware; soft stoneware(와질토기); earthenware(연질토기); stoneware(경질토기); hard earthenware(경질토기)
		도기	-
		도자(기)	glazed ceramics
미국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Hon)	2010	토기	earthenware; earthenware(연질토기); stoneware(경질토기)
		도기	stoneware
		도자	glazed ceramics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박물관(Los)	2012	토기	earthenware; pottery
		도기	pottery
		도자	glazed ceramics; ceramics(도자기); stoneware and porcelains(사기그릇 및 자기)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	2012	토기	stoneware; earthenware
		도기	stoneware
		도자	glazed ceramics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2013	토기	earthenware
		도기	stoneware; earthenware

4) <http://www.nrich.go.kr/kor/page.do?menuIdx=336>

(Vic)		도자	glazed ceramics
미국 시애틀박물관 (Sea)	2015	도기	earthenware; stoneware
		도기	stoneware; unglazed stoneware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Por)	2015	도자	glazed ceramics
		도기	stoneware
		도기	stoneware
미오리건대학 교조던슈니처 박물관(Ore)	2015	도자	glazed ceramics
		도기	earthenware
		도기	stoneware
영국박물관 (Bri)	2016	도자	glazed ceramics
		도기	pottery; earthenware
		도기	earthenware; stoneware; glazed stoneware
		도자공예	glazed ceramics

○ 번역 현황

NRICH 도록 시리즈의 도자기 분야 용어 번역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도록이 어떤 분류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SL-TL의 대응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번역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목차를 기준으로 볼 때 8곳은 광의의 토기(=도기)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a형 분류: 토기 vs. 자기), 나머지 4곳은 토기와 도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협의의 토기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b형 분류: 토기 vs. 도기 vs. 자기).⁵⁾ 이 유형 분류에 따라 목차에 나타난 도자기 관련 기본 용어의 번역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b형 분류를 따르는 도록의 경우 번역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a형 분류에 속한 그룹에서는 번역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b형 모두 ‘자기’라는 용어 대신에 토기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도자기 개념을 채택해 청자, 분청, 백자를 ‘도자’로 묶고 있다. 번역어는 각각 ‘celadon’, ‘buncheon (ware)’, ‘(white) porcelain’으로 대체로 일관성을 보인다 (괄호 안의 단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5)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 도록의 경우 목차에는 ‘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제 본문에서는 ‘도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토기’ 개념을 쓰고 있어 a 유형으로 분류했다.

<표 3> NRICH 도록 시리즈 목차에 나타난 도자기 분야 기본 용어 번역 현황

		a형 분류 (토기=도기, 광의의 ‘토기’ 개념)		b형 분류 (토기≠도기, 협의의 ‘토기’ 개념)		
토기	pottery	Bos	도기	earthenware	Hon, Vic, Sea, Ore	
	earthenware	Los, Bri				
	stoneware	Bro, Phi, Cor, Met, Por	도기	stoneware	Hon, Vic, Sea, Ore	
도자	ceramics	Bos	도자	glazed ceramics	Hon, Vic, Sea, Ore	
	pottery crafts	Bro				
	glazed ceramics	Phi, Cor, Los, Met, Por, B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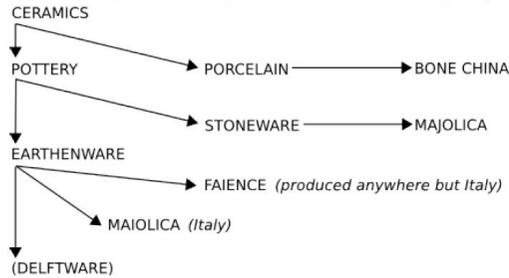
번역어가 혼재하는 a형 분류(토기=도기)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코넬대학교 허버트미술관의 경우 목차(<표 3>)에서는 ‘도기’를 ‘stoneware’로 번역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toneware’와 ‘earthenware’를 혼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경질토기’라도 ‘stoneware’와 ‘hard earthenware’로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브루클린미술관 역시 목차에는 ‘stoneware’라고 되어 있으나 도판 정보에 가면 ‘도기’가 ‘stoneware’(도판 No. 129)와 ‘earthenware’(도판 No. 132)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다. SL 용어뿐만 아니라 TL 용어 또한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3.2 번역어의 적절성

각 번역어의 적절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영어권⁶⁾ 도자기 분류 체계와 비교해 잠재적인 대응 구조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번역자 또한 이러한 SL, TL 대응 관계를 상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Levická(2008)는 슬로바키아어와 영어 도자기 분야 용어 간의 대역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Miller's Pocket Dictionary of Antiques* 등 여러 사전에 수록된 정의를 종합해 그림 2와 같은 영어권 도자기 분류를 제시한다.

6) 슬로바키아도 통상적으로 서양으로 분류되나 Levická(2008)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어와 영어 간에도 도자기 분류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서양이나 서구라는 용어 대신 언어 간 차이에 방점을 두어 ‘영어권’이라 표현하기로 했다.

그림 2 영어권 도자기 분류 (Levická 2008)



이 영어권 분류와 NRICH 도록 시리즈에 적용된 분류 유형별 대응 관계를 작성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의 잠정적 대역 관계를 기준으로 a형, b형 분류별로 도록에 나타난 도자기 기본 용어의 번역 적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분류 체계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명칭(designation)은 동일하더라도 SL 개념(concept)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TL 번역어의 적합성 또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도자기 분야의 잠정적 대역 관계

도자기 (ceramics)					
a형 분류(광의의 '도기')			b형 분류(협의의 '도기')		
SL	TL	TLC	SL	TL	TLC
도기	pottery	pottery	도기	earthenware	earthenware
	earthenware		도기	stoneware	stoneware
	stoneware				
도자	ceramics	(≒) porcelain	도자	glazed ceramics	(≒) porcelain
	pottery crafts				
	glazed ceramics				

주) TLC: 영어권 분류(target language categorization)

○ a, b형 공통 사항: 도자(=자기)

영어권 분류 체계와 비교하면 '자기'는 일반적으로 'porcelain'이라 번역된다. 그러나 온라인 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 따르면 동양의 경우 그릇 벽면을 두

드렸을 때의 공명 여부로 자기를 판별하고 서양은 빛 투과성이 porcelain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분청은 고려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고유의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교육자를 위한 한국 미술 수업 자료(The Arts of Korea: A Resource for Educators)』7)에 따르면 경질토기와 분청, 청자 모두 'stoneware'다(2001: 59-66).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역시 웹사이트에서 청자도 'stoneware'로 분류된다고 적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NRICH 도록 시리즈에서 '도자'는 'porcelain'보다 큰 개념인 것이다(따라서 표에 '≒'로 표시). 유흥준(1999)에 따르면 자기류(청자, 분청, 백자)의 공통 특성이자 질그릇과의 변별적 특성은 유약을 발랐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자'는 '시유된 도자기'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토기까지 포함하는 상위어인 'ceramics'나 '토기'와 대응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ottery'보다는 'ceramics' 앞에 변별적 특성을 붙여 그 의미를 한정해 준 'glazed ceramics'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 a형 분류 체계를 따르는 경우

광의의 '도기' 개념을 적용한 a형 분류에서 '도기'의 TL 번역어로 쓰인 'earthenware'는 'stoneware'에 대비되는 전문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볼 경우 대역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례로 콜린스 온라인 사전(Collins Dictionary)은 'earthenware'를 "vessels, etc, made of baked clay"라고 정의한다. 또한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자료에 따르면 pottery와 earthenware, terracotta는 혼용하여 사용된다(Levická 2008). 즉, 광의의 '도기' 개념처럼 'pottery'와 혼용되는 광의의 'earthenware' 개념은 'stoneware'까지 포함하는 '토제(土製)'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 가능한 번역이라는 의미다.

반면 'stoneware'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질토기(=경질도기)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stoneware'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도록 본문을 살펴보면 코넬대학교허버트미술관은 연질과 경질토기,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협의의 토기와 도기를

7)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metmuseum.org/-/media/files/learn/for-educators/publications-for-educators/korea.pdf>

포함하는 개념으로 목차에서 ‘토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 용어로도 사용되는 ‘earthenware’와 달리 ‘stoneware’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소성 온도를 기준으로 협의의(혹은 전문용어로서의) ‘earthenware’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a형 분류를 따를 경우, 즉 광의의 ‘토기’ 개념을 적용할 경우의 대역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 b형 분류 체계를 따르는 경우

b형 분류에서 SL, TL 대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형 분류와 동일한 분류 체계를 제안한 ‘문화재용어 순화안’은 ‘토기’ 및 ‘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그릇 중 토기는 적갈색을 띠고 연질(軟質)이며, 노천에서 700℃ 정도에서 구어진 것, 도기는 회흑색을 띠고 경질(硬質)이며 가마에서 1000℃ 이상에서 구어진 것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는 토기이며, 삼국시대, 가야시대 통일신라시대 질그릇들은 당연히 도기라고 불러야 한다. (유홍준 1999, 20)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용어	색	경도	소성방법	소성온도	예	
질그릇	토기	적갈색	연질	노천	700℃ 정도	빗살, 민무늬
	도기	회흑색	경질	가마	1000℃ 이상	삼국, 가야

earthenware와 stoneware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표 5>와 같다. 광의의 earthenware 개념을 담고 있는 캠브리지(Cambridge Dictionary)와 콜린스(Collins English Dictionary)를 제외하고 다른 사전에 수록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전문용어로서의 earthenware와 stoneware를 판별하는 기준은 소성온도(temperature), 다공성(porosity), 불투명도(opacity) 등이다. 특히 stoneware는 거의 모든 사전에 고온번조(high-fired; fired at a high temperature)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역시 stoneware가 1200~1300℃에서 고온번조한 경질 도자기를 총칭하는 용어라 정의한다.⁸⁾ 경도(hardness)와 소성온도를

기준으로 보면 유홍준(ibid.)의 주장처럼 토기는 earthenware, 도기는 stoneware라는 대역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번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oneware는 도기 외에도 청자와 분청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표 5> earthenware와 stoneware의 사전적 정의

용어	정의	출처
earthenware	ceramic ware made of slightly porous opaque clay fired at low heat	Merriam-Webster
	made of quite rough clay, often shaped with the hands	Cambridge
	made of clay that is baked so that it becomes hard	Collins
	Pottery made of clay fired to a porous state which can be made impervious to liquids by the use of a glaze	Oxford
	pottery that has not been fired to the point of vitrification and is thus slightly porous and coarser than stoneware and porcelain	Britannica
stoneware	pottery with a porous body, not watertight unless glazed; fired at lower temperatures than stoneware or porcelain so that not all the silicates fuse	Miller's Antiques Dictionary ⁹⁾
	a strong opaque ceramic ware that is high-fired, well vitrified, and nonporous	Merriam-Webster
	plates, dishes, cups, etc. that are made from a special clay baked at a very high temperature	Cambridge
	a hard opaque pottery, fired at a very high temperature	Collins
	a type of pottery which is impermeable and partly vitrified but opaque	Oxford
stoneware	pottery that has been fired at a high temperature (about 1,200°C [2,200°F]) until vitrified (that is, glasslike and impervious to liquid)	Britan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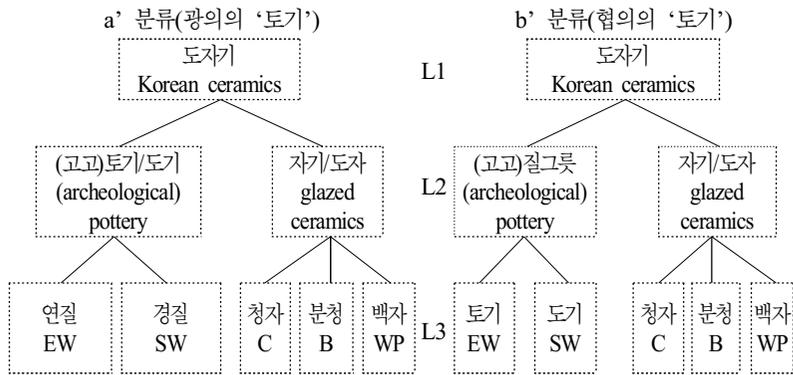
8) <http://www.moco.or.jp/ko/intro/guidance/>

9) Miller's Pocket Dictionary of Antiques(Levická 2008에서 재인용).

4. 개념 체계의 언어간 비대칭성을 고려한 한국 도자사 개념도 및 번역어 제안

앞서 한국 도자 분류(유홍준 1999)와 서양 도자 분류는 단순한 1대 1 대응 관계로 통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자기와 porcelain의 비대칭성 이외에도 청자와 분청도 ‘stoneware’로 분류되기 때문에 SL과 TL을 통합한 도자 개념 체계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시간 요소다. 서양 도자 분류와는 다르게 한국문화사 맥락에서 사용되는 한국 도자 분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시간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토기/도기는 자기가 생산되기 이전의 고고유물이라는 정의를 적용해 시간 요소를 반영한 a, b형 분류의 수정본을 제안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한국 도자사 개념도 수정 및 번역어 제안



- 주1) EW: earthenware; SW: stoneware; C: celadon; B: buncheong ware; WP: white porcelain
- 주2) 총칭관계(generic relations)를 나타내는 수형도(tree diagram)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경질토기(a' 분류)와 도기(b' 분류)를 ‘stoneware’로 번역하더라도 고고유물의 하위 분류이기 때문에 자기/도자에도 ‘stoneware’(청자, 분청)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 NRICH 도록 시리즈에서도 ‘토기’는 고고유물의 하위 분류로 목차에 명시적으로 혹은 본문 도표 등에 표시되어 있다. 고고유물

임이 목차에서 명확하게 적시된 경우에는 시기 정보가 이미 상위 분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pottery’라고만 번역하면 된다(개념도에서 괄호 표시로 생략 가능성을 표시함). 또한 a'와 b' 모두 L2에서 ‘선사(prehistoric)’가 아닌 ‘고고(archeological)’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이전 시기까지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반면 시기 정보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 시 시기 정보를 삽입해 주어야 도록에 내재된 도자기 개념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토기’가 고고유물임을 목차는 물론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아¹⁰⁾ 시대(시간 요소)와 무관하게 TL 번역어 기준으로 ‘stoneware’와 ‘glazed ceramics’가 상호배타적 개념이라는 인상을 준다(아래 그림 4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자와 분청도 ‘stoneware’이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4 NRICH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도록 목차

- 토기(Stoneware)
- 도자(Glazed ceramics)
 - 청자(Celadon)
 - 분청(Buncheong)
 - 백자(White porcelain)
- 공예(Metal and lacquer ware)
- 회화(Paintings)
 - 일반회화(Secular painting)
 - 불교회화(Buddhist painting)
- 불교 조각(Buddhist sculpture)
- 복식·장신구(Textile·Accessories)

그림 3에서 제시한 SL, TL 대역 관계를 반영한 개념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선화(2006)처럼 시기적 구분이 아닌 토기/도기를 시유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또 다른 개념도가 작성되어야

10) 번역자가 해당 분야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제어적 성격의 목차, 분류표 등단을 포함하며 각 유물별 설명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시대 정보는 제외한 것이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시간 요소를 고려한 한국 도자사 기술 맥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통합적 분류 체계 및 SL, TL 대역 관계이다. 또한 earthenware와 stoneware를 소성온도를 기준으로 low-fired, high-fired pottery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arthenware 역시 stoneware까지 포함해 광의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안은 절대적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사가 도자기 분야 한영 번역 시 최적의 대역어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본고는 한국 문화를 소개함에 있어 도자기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용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문화재 분야 번역 연구가 주로 텍스트 번역 자체만을 살펴보았다면(최희섭 2009/2010; 박순봉, 최희섭 2009 등) 본 연구는 도자기라는 특정 분야의 분류 체계와 연관지어 번역을 고찰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 백자, 청자 등의 자기류는 번역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토기 등의 용어는 번역어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번역의 특성 상 다양한 대역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용어로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일 분야라 하더라도 SL, TL 개념/분류 체계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1대 1 대응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 도자사를 소개하는 맥락에서는 더욱이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분류 체계가 시간 요소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자체의 혼란이다. 대표적으로 SL 용어와 관련해, ‘토기’는 ‘도기’와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용어가 다른 변별적 특성을 갖는 상호배타적 개념을 표상하기도 하는 것이다. 편의상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용어의 비표준화 문제는 분야 분류 체계와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도자사에서 한국 도자사의 정확한 위치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특히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이 SL 용어의 표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그와 더불어 문화재 각 분야, 번역학, 전문용어학 등 학제간 협업을 통해 정확한 TL 번역어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한국 근현대미술로 국한하고는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¹¹⁾ 편찬 사업은 반가운 행보라 할 수 있다. 1차년도 기준, 분야 전문가와 번역학자 간 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의 품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각종 용어 및 번역 혹은 영문 표기 표준화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용역 사업 완료와 함께 그 성과물이 더 이상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속성 상 보완점이 존재함에도 단발성으로 진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귀중한 노력의 결과물이 국내외적으로 배포되고 실제로 번역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 미술사』.
 나선화 (2006) 『한국의 전통 공예 도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문화재청 (2000)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 문화재청.
 박미화 (2014)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분류체계의 재정비와 기술지침」.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6: 50-69.
 박순봉, 최희섭 (2009) 「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 『번역학연구』 10(3): 99-119.
 박현주 (2018) 「전문용어 생성 원칙의 번역학적 적용 - 세계유산 개념 ‘serial

11) <https://gokams.or.kr:442/visual-art/art-terms/>

properties'의 번역 용어 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135-162.
문화재청 (1999) 『문화재용어 순화안』. 문화재청 문화재용어 순화사업 학술용
역 보고서.

유홍준 (1999) 「도자기의 용어 통일(안)」, 『문화재용어 순화안』 19-24.

이청규 (1999) 「고고학 용어 순화안의 기본방향」, 『문화재용어 순화안』 11-13.

최희섭 (2009) 「경기전 일대 영어안내판의 오류 분석」, 『번역학연구』 10(1):
199-223.

최희섭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 명칭 영문 번역 고찰」, 『번역학연
구』 11(1): 271-291.

Levická, Jana (2008) 'Terminology Variation: On the Concept of Synonymy in
the Light of an Interlingual Analysis of a Terminology Field', in
*Terminológia v odbornom preklade. Košice: Tlmočnícky ústav FF UPJŠ
Košice* [Terminology in professional translation. Košice: Interpreting
Institute of FF UPJŠ Košice], 29-49 (Accessed on Dec. 16, 2018,
<https://korpus.sk/attachments/publications/LEVICKAkosice.pdf>).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009)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1). *The Arts of Korea: A Resource for
Educators*.

국립국어원(다듬은 말/순화어) <http://www.korean.go.kr/sunhwa/>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한국미술다국어용어사전 <https://gokams.or.kr:442/visual-art/art-term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http://www.moco.or.jp/ko/>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

Collins English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

[Abstract]

A Study on Classification in the Ceramics Field and Translation of Basic Terms

Park, Hyun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asic terms in the field of Korean ceramic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Some SL terms were translated consistently while others were translated in varied ways, including some misleading translations. The errors resulted from two causes: non-symmetry in classification in the field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he ambiguity of basic concepts. In Korean art history, for example, “togi” can be used as a broad term to include earthenware and stoneware in the TL culture. But it can also refer only to earthenware, excluding stoneware and porcelain. In the former case, the SL terms “togi” and “dogi” are used interchangeably, while in the latter they have different conceptual delimitation. Also, when introducing Korean ceramics histor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field reflects the “time” factor that is not considered in the English conceptual structure, complicating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L terms. In sum,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what is ostensibly the same field may differ between two languages, and that the interlingual, conceptual gaps need to be considered in translation.

▶ Keywords: classification/conceptual structure of the ceramics field, basic terms/
concepts, interlingual non-symmetry, *togi*, *dogi*

▶ 주제어: 도자기 분야 분류/개념 체계, 기본 용어/개념, 언어 간 상이성, 토기, 도기

박현주

부산대학교 글로벌 영상번역 창의인재 교육-연구 혁신 사업단 계약교수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 번역, 번역 보조 도구, 전문용어사전, 코퍼스번역학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9일